

## 동의보감의 배통처방에 대한 분석

한영수·오민석\*

### The Analysis of prescription used for back pain in the Donguibogam(東醫寶鑑)

Young Soo Han, Min Suck Oh

Dept.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1. The frequency of source of prescriptions is Dongweonshibse(東垣十書), Hagansanghan-samyukse(河間傷寒三六書), Senmyoungtronbang(宣明論方), Gogumuigam(古今醫鑑), Dangyesimbob(丹溪心法), Uihakgangmok(醫學綱目), Taepyonghyeminhwajekukbang(太平惠民和劑局方) in sequence.

2. The classification of prescriptions by efficacy is Haepyoyak(解表藥), Igiyak(理氣藥), Boikyak(補益藥), Sahayak(瀉下藥), Chongyolyak(清熱藥等), etc., in sequence.

3. The frequency of used medicine is Gangwhal(羌活), Insam(人蔘), Hwangbaek(黃柏), Gamsu(甘遂), Jadakek(紫大戟), Daehwang(大黃), Seungma(升麻), Shiho(柴胡), Bangpung(防風), Jinpi(陳皮), Oyak(烏藥), Chongung(川芎), Changchul(蒼朮), Gobon(藜蘆), etc., in sequence.

4. The Song(性) of used medicine is mainly Onsong(溫性) and Hansong(寒性), the mi(味) is Sinmi(辛味), Gomi(苦味), Gammi(甘味), Hammi(鹹味) in sequence, the Gwigyong(歸經) is Bigyong(脾經), Wigyong(胃經), Gangyong(肝經), Paegyong(肺經), etc., in sequence.

### I. 緒論

背部는 肋骨, 胸椎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 주위는 筋肉에 의해 둘러 쌓여있다. 다시 말하면 12쌍의 肋骨이 12개의 胸椎와 연결됨으로써 胸廓 더붙어 骨格을 형성한 것으로, 胸腔內臟을 保護하는 동시에 呼吸作用에 關與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up>1)</sup>.

痛症이란 신체의 일부에 국한된 기분 나쁜 感覺이다. 이것은 가끔 조이거나 조직파괴과정(절린다.

뜨겁다. 꼬인다. 찢어진다. 육편다)의 어휘로 묘사되거나 精神的 反應(무겁다. 역겁다. 몸이 안 좋다)등의 語彙로 描寫되기도 한다. 게다가 中等度나 高度의 어떤 통증은 不安과 당장 탈피하고 싶다는 느낌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痛症의 이 증성을 설명한다. 이 통증은 곧 感覺이면서 感情이다<sup>2)</sup>.

痛症이 疾病의 信號라고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환자가 의사를 찾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일차 진료기관에 진료되는 모든 외래환자의 10% 이상이 근골격계의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sup>2)</sup>.

또한, 痛症은 原因에 의하여 局所痛, 聯關痛, 脊髓 神經痛, 筋肉痙攣에 의한 통증으로 대별되는데, 각기 다른 질병은 조직손상에 있어서 특징적 類型을 가지게 되므로, 환자가 호소하는 痛症의 質, 時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교실  
· 교신저자 : 오민석 · E-mail : ohmin@dju.ac.kr  
· 채택일 : 2004년 5월 30일

間經過 및 位置와 壓痛의 위치는 중요한 진단적 단서를 제공하고 치료 반응의 평가에 쓰이는데<sup>2)</sup>, 韓醫學에서 痛症은 外邪의 侵入이나 感情 등의 영향으로 經絡 臟腑의 氣血運行이 저해되어 疼痛이 發生한다<sup>3)</sup>하였다.

따라서, 背部 痛症은 內科 疾患과의 鑑別診斷은 물론, 傷科 領域에서의 接近이 중요한데, 이에 著者는 背部 痛症의 效果的인 治療方法의 摸索을 위하여 東醫寶鑑에서 言及된 背部 痛症에 使用하는 處方을 분석하여 若干의 指針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精門<sup>4)</sup>

#### 【精爲身本】

靈樞曰兩神相薄合而成形常先身是謂精精者身之本也又曰五穀之津液和合而爲膏內滲入于骨空補益髓腦而下流于陰股陰陽不和則使液溢而下流于陰下過度則虛虛則腰背痛而脛瘦又曰髓者骨之充腦爲髓海髓海不足則腦轉耳鳴胣疼眩冒

### 2) 言語門<sup>4)</sup>

#### 【言語法】

少言語養內氣<七禁文>○語過多成咳嗽或失音<脉訣>○凡言語誦讀常想聲在氣海中(臍下穴名)每日初入後勿言誦讀寧待平朝也<得效>○食上不得語語而食者常患胸背痛古人食不語寢不言以此故也<得效>○勿臥大語損人氣力亦不用寢臥多言笑寢不得言語者言五藏如鍾磬然不懸則不可發聲也<得效>○行不得語若欲語須住脚乃得語行語則令人失氣<得效>○東垣省言箴(詳見身形)

### 3) 痰飲門<sup>4)</sup>

#### 【伏飲】

膈上痰滿喘咳或吐發則寒熱背痛腰痛目淚自出其人振振身潤劇必有伏飲<仲景>○伏飲者水停膈滿嘔吐喘咳發熱惡寒腰痛目淚出或身惕潤宜三花神佑丸(方見下門)控涎丹(方見下)<入門>

### 4) 肺臟門<sup>4)</sup>

#### 【肺病證】

邪在肺則皮膚痛寒熱上氣喘汗出咳動肩背<靈樞>○風寒入舍於肺名曰肺痺發咳上氣○肺病者喘咳逆氣肩背痛汗出尻陰股膝脾膈脘足皆痛虛則少氣不能報息耳聾噎乾○肺熱者色白而毛敗<內經>○外證面白善噎悲愁不樂欲哭內證膈右有動氣按之牢若痛其病喘咳洳漸寒熱<難經>○大骨枯槁大肉陷下胸中氣滿喘息不使其氣動形期六月死眞藏脉見乃予之期日此肺之藏也一百八十日內死<內經>

#### 【肺病虛實】

肺氣虛則鼻息不利少氣實則喘喝胸憑仰息<靈樞>○肺藏氣氣有餘則喘咳上氣氣不足則息利少氣○肺實則令人逆氣而背痛慳慳然虛則令人喘呼吸少氣而咳上氣見血下聞病音<內經>

### 5) 腎臟門<sup>4)</sup>

#### 【腎臟大小】

腎者主爲外使之遠聽視耳好惡以知其性○黑色小理者腎小理者腎大耳高者腎高耳後陷者腎下耳堅者腎堅耳薄不堅者腎脆耳好前居牙車者腎端正耳偏高者腎偏傾也○腎小則藏安難傷腎大則善病腰痛易傷於邪腎高則苦背脊痛不可以俛仰腎下則腰尻痛或爲狐疝腎堅則不病腰背痛腎脆則善病消痺腎端正則和利難傷腎偏傾則苦腰尻痛也<靈樞>

### 6) 背門<sup>4)</sup>

#### 【背痛】

肩背痛屬肺分野內經曰西風生於秋病在肺愈在肩故秋氣者病在肩背又曰秋脉太過則令人逆氣背痛慳慳然<綱目>○肺病者喘咳逆氣肩背痛汗出又曰邪在腎則病肩背頸項痛<靈樞>○肩背痛宜用通氣防風湯脊痛項強腰似折項似拔宜羌活勝(習方湯見頸項)○背心一點痛宜三合湯<醫鑑>○脊骨胛眼痛宜蒼朮復煎湯<丹心>○腎尖痛者陰虛而膀胱有火也四物湯(方見血門)加知母黃柏及桂少許有痰合二陳湯(方見痰飲)加澤瀉前胡木香爲引痛甚加乳香沒藥<入門>○背疼乃作勞所致技藝之人與士女刻苦者多有此患色勞者亦患之惟灸膏肓穴爲妙<資生>○一男子患背胛縫有一線痛起上肩跨至胸前側脇而止其痛晝夜不歇診其脉弦而數

重取豁大左大於右予意背胛小腸經也胸脇膈經也此必思慮傷心心藏未病而小腸府先病故痛從肩胛起及慮不能決乃歸之膈故痛至胸脇而止乃小腸火乘膽木子來乘母是爲實邪詢之果因謀事不成而病用人參四分木通二分煎湯吞龍薈丸(方見五藏)數服而愈<丹溪>

【通氣防風湯】治太陽經中寒濕肩背痛不可回顧又云肩背痛乃風熱乘肺氣鬱甚也黃芪升麻柴胡各一錢防風羌活活陳皮人參甘草各五分青皮三分白豆蔻黃柏各二分右剉煎服<東垣>

【三合湯】治背心一點痛烏藥順氣散(方見風門)合二陳湯(方見痰飲)香(蘇方散見寒門)加羌活蒼朮水煎服<醫鑑>

【蒼朮復煎湯】治寒濕相合腦痛脊骨胛眼痛膝臏痛蒼朮四兩水二碗煎至一碗去滓入羌活升麻澤瀉柴胡藁朮白朮各五分黃柏三分紅花少許右剉入蒼朮湯內再煎至半去滓服<丹心>

【脊強】

督脉之別名曰長强其病實則脊强<靈樞>○足太陽之脉病腰脊强痛<靈樞>○膀胱腎間冷氣攻衝背脊腰脊强俯仰不利宜烏沈方湯(見氣門)○脊痛項强背痛不可回顧此足太陽手太陽經中濕氣鬱不行也宜羌活勝濕湯(方見頸項)

Ⅲ. 總括 및 考察

東醫寶鑑은 許浚등이 朝鮮末 1611년에 만든 醫書로 中國의 明以前 醫書를 選集하여 分類 編輯해서 完成한 것으로<sup>5)</sup> 특히 背痛에 관한 處方들은 現在에도 유용한 것들이 있어 앞으로 背痛의 治療方法과 診斷方法의 연구와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思料되어 分析을 시도해 보았다.

東醫寶鑑에서 언급된 背痛에 관한 처방은 모두 8처방으로, 사용약물은 51가지였다(표 1, 표 2). 出典頻度는 東垣十書 2回, 河間傷寒三六書, 宣明論方, 古今醫鑑, 丹溪心法, 醫學綱目, 太平惠民和劑局方은 各 1回씩이었다. 東垣十書는 金元代的 李東垣의 著作으로 脾胃의 作用을 강조하여 이후 東醫學理論과 臨床發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升發溫補之品을 多用하고, 甘溫除熱의 說을 提倡

하여 補土에 관한 많은 업적을 남겼다<sup>6)</sup>.

劉河間三六書는 明의 吳勉學이 엮은 것으로, 河間의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宣明論方, 素問玄機原病式, 傷寒直格, 傷寒標本 및 馬宗素의 傷寒醫鑑, 鍾洪의 傷寒心要, 常德的 傷寒心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6)</sup>.

宣明論方은 劉完素의 著作으로 모두 15卷인데, 첫머리에 『內經』에 기재된 煎厥, 薄厥, 飧泄 등 모두 61證을 실었다. 다음으로는 諸風, 熱, 傷寒, 積聚, 水濕, 痰飲, 勞, 燥, 泄利, 婦人, 補養, 諸痛, 痔瘻, 眼目, 小兒 및 雜病 등 17門을 排列하였으며, 每門마다 各各 總論을 두어, 運氣의 理致 및 諸家の 方論을 밝혔으며, 治療에 있어서는 寒涼劑를 多用하였다<sup>7)</sup>.

古今醫鑑은 明代的 龔廷賢의 著作으로 明以前의 諸家の 醫論을 集約하였다<sup>6)</sup>.

丹溪心法은 元代的 醫家인 朱震亨의 著作으로, 그의 君火相火論과 陰常不足 陽常有餘論은 生理 및 病理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6)</sup>.

醫學綱目은 樓英의 著作으로 40卷이며 모두 10部로 나누어져 있는데, 每部는 病證, 治法, 方藥으로 또 각각 구별되어 있다. 本書의 최대의 特點은 綱目이 整然하고 秩序가 整然한 것인데, 各種질병을 모두 臟腑에 따라서 五部로 나누는 방법을 썼는데, 千金方에 비해 크게 진보한 것이다<sup>7)</sup>.

太平惠民和劑局方은 宋代的 官藥所의 賣藥處方의 지침서로 매우 널리 유전되어 中風 救急藥으로 常用되어온 牛黃清心元도 이 책에서 나온 것이다<sup>6)</sup>.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東醫寶鑑의 背痛處方은 주로 金元時代부터 明代에 이르는 여러 醫書를 고루 참고하였는데, 이 시기는 背痛의 원인에 대한 學說도 다양화되었던 시기로 이전에는 辛溫通陽하는 治方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이때부터 活血化癆, 理氣祛痰하는 處方들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使用藥物을 效能別로 分類하여보면 解表藥, 理氣藥, 補益藥, 瀉下藥, 清熱藥 등의 順이었다(표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解表藥中에서 發散風寒藥이 가장 많이 쓰였고 補益藥중에는 補氣藥이 많이 쓰

였으며 淸熱藥에서는 淸熱燥濕藥이, 瀉下藥에서는 峻下逐水藥이 많은 비율로 사용되었다.

解表藥이 주로 사용된 이유는 金元時代以前에 주로 질병을 外邪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던 관점에서 창방된 처방들이 워낙 많았던 것의 영향으로 보이며, 補益藥을 많이 사용한 것은 李東垣이 주장한 正氣自虛<sup>6)</sup>를 背痛의 주요원인으로 생각하여 補氣, 補血하는 藥材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淸熱藥이 多用된 것은 劉河間의 六氣가 모두 化火할 수 있다는 主火論<sup>6)</sup>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朱丹溪도 濕痰生熱이라 하였으며, 또 五志化火하여 心火暴盛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瀉下藥은 淸熱藥이 多用된 이유와 비슷하고, 또한 濕痰生熱이라고 주장한 朱丹溪의 영향<sup>6)</sup>으로 보인다.

處方構成에 따른 藥物의 使用 頻度數를 보면 羌活, 人蔘, 黃柏, 甘遂, 紫大戟, 大黃, 升麻, 柴胡, 防風, 陳皮, 烏藥, 川芎, 蒼朮, 藁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甘草는 除外함)

羌活, 防風, 藁本은 發散風寒하는 作用으로 多用되었고, 柴胡와 升麻는 發散風熱하는 作用으로 多用된 것으로 보이며, 甘遂, 大戟은 背痛의 原因인 痰飲을 除去하기 위해 峻下逐水하는 作用으로 多用한 것으로 보이며, 人蔘은 補正氣하여 正氣自虛로 인해 발생하는 背痛을 막기위한 것으로 보이며, 蒼朮은 消化力を 極大化하여 胃脘部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胸背部의 疼痛緩和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思料된다. 川芎은 活血하면서 理氣하는 作用이 있어 多用된 것으로 보이고 黃柏은 淸熱燥濕을, 大黃은 攻下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使用하였고 陳皮, 烏藥은 理氣祛痰하는 作用으로 多用된 것으로 보인다.

使用藥物의 性味歸經을 살펴보면 性은 溫, 寒性이 主였으며, 平·涼·熱의 順이었다(표 4). 이는 背痛을 주로 寒證과 熱證의 두 방면으로 보고 藥物을 使用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溫性藥이 寒性藥의 倍로 사용된 것을 보아 寒證에 焦點을 맞추어 使用했음을 알 수 있다. 味는 辛味, 苦味, 甘味, 鹹味の 順으로 使用되었고 酸味는 使用되지 않았다. 辛味는 助熱, 發散, 利竅하는 성질이 강하므로 溫散心竅할 목적으로 多用되었고, 苦味는 瀉火, 鎮靜

시키는 作用으로 心火暴盛이나 濕痰生熱한 데에 자주 使用되고, 甘味는 緩和하고 補益하는 작용이 있어 痛症으로 硬直된 筋肉의 弛緩 및 正氣自虛의 補益에 頻用된다. 使用藥物의 歸經을 分析해 보면 脾經, 胃經, 肝經, 肺經등의 順으로 나타나 腹背部에 위치하는 臟器로 歸經함을 알 수 있다.

以上の 分析結果를 보면 背痛의 治療藥物들은 溫補通陽에서 점차 活血, 化痰, 理氣, 祛痰하는 方面으로 變貌하는 경향이 있어, 現代에 있어 背痛을 背部筋膜炎, 脊椎疾患등과 聯關지어 생각해 본다면 活血化痰, 理氣祛痰하는 藥物들이 多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런 藥物로는 五靈脂, 川芎, 玄胡索, 蓬朮, 乳香, 沒藥, 桃仁, 紅花, 陳皮, 木香, 枳殼, 半夏, 南星, 桔梗등의 藥物을 들 수 있겠다. 또한 補氣하는 人蔘, 黃芪, 白朮, 甘草, 大棗와 補血하는 當歸, 熟地黃등의 藥物도 正氣의 수준에 따라 적절히 加減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古典의 背痛의 基本的인 病機인 ‘寒卽痛’의 개념에 따라 發散風寒하는 麻黃, 紫蘇葉, 羌活, 防風, 藁本등의 藥物도 다용해야 하리라 사료된다.

藥味는 辛味, 苦味가 가장 많았는데, 辛味는 溫散利竅의 作用이 있어 經絡을 疏通시키려는 목적으로 다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약물로는 紫蘇葉, 白芷, 藁本, 生薑, 蔥白등이 있으며, 苦味는 현대인들이 각종 社會環境의 急變과 精神的 緊張으로 인해 背痛이 誘發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苦味の 鎮靜瀉火시키는 作用을 심분 활용해 볼 수 있으니 黃芩, 柴胡, 黃連, 黃柏등의 藥物이 代表的이다. 歸經을 分析해보면 脾經, 胃經, 肝經, 肺經등의 順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주로 腹背部에 위치하는 臟器로 歸經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精神的 刺戟과 緊張, 環境의 汚染이 심한 現代에는 肝氣鬱結, 肝木不和, 脾陽不振, 肺氣不清등으로 인해 發生하는 背痛에 脾胃經과 肺, 肝經을 中心으로 하는 藥物들의 사용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黃連, 梔子, 當歸등이 代表的인 藥物이라 하겠다(표 5).

【표 1】背痛에 쓰인 處方

處方名	主治症狀	處方構成	出典
控涎丹	治痰飲流注作痛	甘遂紫大戟白芥子各等分	河間傷寒三六書
三花神祐丸	治一切水濕腫滿	黑丑(頭末)二兩大黃一兩芫花甘遂大戟各五錢輕粉一錢	宣明論方
通氣防風湯	治太陽經中寒濕肩背痛不可回顧又云肩背痛乃風熱乘肺氣鬱甚也	黃芪升麻柴胡各一錢防風羌活陳皮人蔘甘草各五錢青皮三分白豆蔻黃柏各二分	東垣十書
三合湯	烏藥順氣散治一切風疾先服此疏通氣道進以風藥又治癱瘓歷節風 二陳湯通治痰飲諸疾或嘔吐惡心或頭眩心悸或發寒熱或流注作痛 香蘇散治四時瘟疫	烏藥順氣散： 麻黃陳皮烏藥各一錢半川芎白芷白僵蠶枳殼桔梗各一錢乾薑五分甘草三分薑三片棗二枚 二陳湯： 半夏製二錢橘皮赤茯苓各一錢甘草炙五分薑三片 香蘇散： 香附子三錢紫蘇葉二錢半陳皮一錢半蒼朮甘草各一錢薑三葱白二	古今醫鑑
蒼朮復煎湯	治寒濕相合腦痛脊骨脚眼痛膝腫痛	蒼朮水二椀煎至一椀去滓四兩羌活升麻澤瀉柴胡薑本白朮各五分黃柏三分紅花少許	丹溪心法
龍薈丸加人參木通	治肝臟實熱脇痛	草龍膽山梔子黃連黃柏黃芩各一兩大黃蘆薈青黛各五錢木香二錢半麝香五分	醫學綱目
烏沈湯	治諸氣背膂心腹痛	烏藥一兩沈香五錢甘草炙四錢人蔘三錢	太平惠民和劑局方
羌活勝濕湯	治太陽經中寒濕項強或似拔不得回顧	羌活獨活各二錢薑本防風甘草各一錢川芎蔓荊子各五分	東垣十書

【표 2】使用藥物 效能別分類(괄호안의 숫자는 약물의 개수)

藥物分類		使用된 藥物
解表藥	發散風寒藥(8)	麻黃 紫蘇葉 羌活 白芷 防風 薑本 生薑 葱白
	發散風熱藥(3)	柴胡 升麻 蔓荊子
清熱藥	清熱瀉火藥(1)	梔子
	清熱燥濕藥(4)	黃芩 黃連 黃柏 龍膽草
	清熱解毒藥(1)	青黛
瀉下藥	攻下藥(2)	大黃 蘆薈
	峻下逐水藥(4)	甘遂 大戟 芫花 牽牛子
祛風濕藥	祛風濕止痺痛藥(1)	獨活
芳香化濕藥(2)		蒼朮 白豆蔻
利水滲濕藥	利水退腫藥(2)	赤茯苓 澤瀉
	利尿通淋藥(1)	木通
溫裏藥(1)		乾薑
理氣藥(7)		陳皮(橘皮) 青皮 枳殼 木香 香附子 烏藥 沈香
活血祛瘀藥(2)		川芎 紅花
化痰止咳平喘藥	溫化寒痰藥(2)	半夏 白芥子
	清化熱痰藥(1)	桔梗
平肝藥	平肝息風藥(1)	白殭蠶
開竅藥(1)		麝香
補益藥	補氣藥(5)	人蔘 黃芪 白朮 甘草 大棗
	補血藥(1)	當歸
外用藥(1)		輕粉

【丑 3】 使用頻度別 藥物分類

使用頻度	藥物
4回	甘草
3回	羌活, 人蔘, 黃柏
2回	甘遂, 紫大戟, 大黃, 升麻, 柴胡, 防風, 陳皮(橘皮), 烏藥, 川芎, 蒼朮, 藁本
1回	麻黃, 紫蘇葉, 白芷, 生薑, 葱白, 蔓荊子, 梔子, 黃芩, 黃連, 龍膽草, 青黛, 蘆薈, 芫花, 牽牛子, 獨活, 白豆蔻, 赤茯苓, 澤瀉, 木通, 乾薑, 青皮, 枳殼, 木香, 香附子, 沈香, 紅花, 半夏, 白芥子, 桔梗, 白殭蠶, 麝香, 黃芪, 白朮, 大棗, 當歸, 輕粉

【丑 4-1】 使用藥物的 性味

	性							味				
	寒	熱	涼	溫	平	無毒	有毒	酸	苦	甘	辛	鹹
乾薑		○				○					○	
陳皮				○		○			○		○	
青皮				○		○			○		○	
枳殼			○			○			○		○	
木香				○		○			○		○	
香附子					○	○			○	○	○	
烏藥				○		○					○	
沈香				○		○			○		○	
川芎				○		○					○	
紅花				○		○					○	
半夏				○			○				○	
白芥子				○			○				○	
桔梗					○	○			○		○	
白殭蠶					○						○	○
麝香				○		○					○	
人蔘				○		○			○	○		
黃芪				○		○				○		
白朮				○					○	○		
甘草					○					○		
大棗				○		○				○		
當歸				○		○				○	○	
輕粉	○						○				○	

【표 4-2】 使用藥物の 性味(계속)

	性							味				
	寒	熱	涼	溫	平	無毒	有毒	酸	苦	甘	辛	鹹
乾薑		○				○					○	
陳皮				○		○			○		○	
青皮				○		○			○		○	
枳殼			○			○			○		○	
木香				○		○			○		○	
香附子					○	○			○	○	○	
烏藥				○		○					○	
沈香				○		○			○		○	
川芎				○		○					○	
紅花				○		○					○	
半夏				○			○				○	
白芥子				○			○				○	
桔梗					○	○			○		○	
白殭蠶					○						○	○
麝香				○		○					○	
人蔘				○		○			○	○		
黃芪				○		○				○		
白朮				○					○	○		
甘草					○					○		
大棗				○		○				○		
當歸				○		○				○	○	
輕粉	○						○				○	

【표 5-1】 使用藥物の 歸經

	歸經											
	肝	膽	心	小腸	心包	三焦	脾	胃	肺	大腸	腎	膀胱
麻黃									○			○
紫蘇葉							○		○			
羌活	○										○	○
白芷								○	○	○		
防風	○						○					○
藁本												○
生薑							○	○	○			
葱白								○	○			
柴胡	○	○										
升麻							○	○	○	○		
蔓荊子	○							○				○
梔子	○		○			○		○	○			
黃芩		○						○	○	○		
黃連	○		○					○		○		
黃柏										○	○	○

【표 5-2】 使用藥物の 歸經(계속)

	歸經											
	肝	膽	心	小腸	心包	三焦	脾	胃	肺	大腸	腎	膀胱
龍膽草	○	○						○				
青黛	○							○	○			
大黃	○				○		○	○		○		
蘆薈	○									○		
甘遂									○	○	○	
大戟							○		○		○	
芫花							○		○		○	
牽牛子									○	○	○	
獨活											○	○
蒼朮	○						○	○				
白豆蔻							○	○	○			
赤茯苓			○				○					○
澤瀉											○	○
木通			○	○								○
乾薑							○	○	○			
陳皮							○		○			
青皮	○	○										
枳殼							○		○	○		
木香	○						○		○			
香附子	○					○	○					
烏藥							○		○		○	○
沈香							○	○			○	
川芎	○	○			○							
紅花	○		○									
半夏							○	○	○			
白芥子									○			
桔梗									○			
白僵蠶	○								○			
麝香			○				○					
人蔘			○				○		○			
黃芪							○		○			
白朮							○	○				
甘草			○				○	○	○			
大棗							○	○				
當歸	○		○				○					
輕粉				○						○		

和劑局方등의 순이었다.

#### IV. 結論

동의보감에서 언급된 처방중 배통에 사용된 처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처방의 출전빈도는 東垣十書, 河間傷寒三六書, 宣明論方, 古今醫鑑, 丹溪心法, 醫學綱目, 太平惠民

2. 사용약물을 효능별로 분류하여 보면 解表藥, 理氣藥, 補益藥, 瀉下藥, 清熱藥 등의 順이었다.

3. 사용약물의 빈도순으로 보면 羌活, 人蔘, 黃柏, 甘遂, 紫大戟, 大黃, 升麻, 柴胡, 防風, 陳皮, 烏藥, 川芎, 蒼朮, 藁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사용약물의 성미를 분석해보면 性은 溫, 寒性이 主였으며 味는 辛味, 苦味, 甘味, 鹹味の 順으



로 사용되었고 酸味는 사용되지 않았다. 使用藥物의 歸經을 分析해 보면 脾經, 胃經, 肝經, 肺經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1. 강기선 외 : 인체해부학, 서울, 고문사, 1996, pp. 78-91, p. 100, pp. 151-156, pp. 162-167.
2. 해리슨 내과학 편찬위원회편 : 내과학(상), 서울, 정담, 1997, p. 54, 74, 1816, 1817.
3. 김창환 외 : 근막동통증후군의 치료, 서울, 정담, 1995, pp. 167-169.
4. 허준 : 동의보감, 동의보감국역위원회 : 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 142, 257, 323, pp. 324-325, p. 329, pp. 657-658.
5. 김동일 외 : 동의학 사전, 서울, 여강출판사, 1989, pp. 222-223, p. 1217.
6. 홍원식 : 중국의학사, 서울, 동양의학연구소, 1987, p. 152, 166, pp. 214-216, pp. 219-221, p. 223, pp. 258-259.
7. 홍원식, 윤창렬 :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일중사, 2001, p. 323, 346.
8. 전국한의과대학심계내과학교실 편 : 심계내과학, 서울, 서원당, 1999, pp. 85-86, p. 223.
9.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공편저 : 본초학, 서울, 영림사, 1955, pp. 121-126, 128-133, 135-136, 149-153, 167-168, 178-183, 189-192, 195-196, 242-245, 247-256, 263, 264, 289-299, 302-306, 309-310, 315-317, 331-338, 340-359, 362-363, 365-366, 370-374, 376-382, 401-402, 409-419, 423-426, 428-430, 441-442, 448-449, 450-451, 453-455, 460-463, 478-479, 483-485, 489-490, 493-494, 496-497, 506-507, 520-522, 522-523, 523-524, 525-526, 526-527, 531-533, 534-536, 536-537, 537-538, 540-541, 542-543, 559-560, 561-562, 578-580, 581-583, 585-586, 588-589, 611-612, 612-614, 615-616, 632-633, 634-635, 641-642, 642-643, 646-647.